

치 사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덕큰스님과 내외 귀빈, 그리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불교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불교의 자비를 경전의 글자가 아닌,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보여주시는 분들과 대승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귀중한 자리입니다. 재단의 15년간 발자취는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로서 불국정토의 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고 화려하며 물질적으로 더없이 풍요로운 듯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정신적 공허함은 더욱 깊어가는 듯 합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그렇지 못함을 양분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외된 이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중생이 하나이며, 공업에 의해 상의상관하는 연기적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기에 이미 그 이념에서 복지의 바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20여 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이웃종교와 어깨를 견줄 만큼 비약적인 성공을 이루어 낸 것은 많은 불교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자비 실천에 대한 원력이 매우 지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져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 또한 매우 큼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원봉사, 국제구호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함이 없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천의 손, 천의 눈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사회 곳곳의 그늘진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사회 각계와 소통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불교의 위상강화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1,700여 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 꽃 피웠던 거룩한 구제행이 현대에 계승되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힘찬 재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기까지,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 헌신해 오신 불교사회복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를 치하하며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변웅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4(2010)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